

보도 일시	2023. 3. 2.(목) 08:00	배포 일시	2023. 3. 2.(목) 08:00
담당 부서	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	책임자	과 장 양동희 (042-481-2157)
		담당자	서기관 서지현 (042-481-2208)

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- 제12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『2020년 5월』을 잠정 설정

- 통계청(청장 한훈)은 경기분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12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'20년 5월을 잠정 설정하였음
 - 기준순환일 설정을 위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, GDP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, 당시 경제 여건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
- 이로써, 제11순환기는 '13년 3월 경기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가 확장하면서 '17년 9월 정점(잠정)이 형성되었으며, 32개월간 경기가 수축하면서 86개월간 지속되었음

<참고1>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

<참고2> 기준순환일 설정 관련 Q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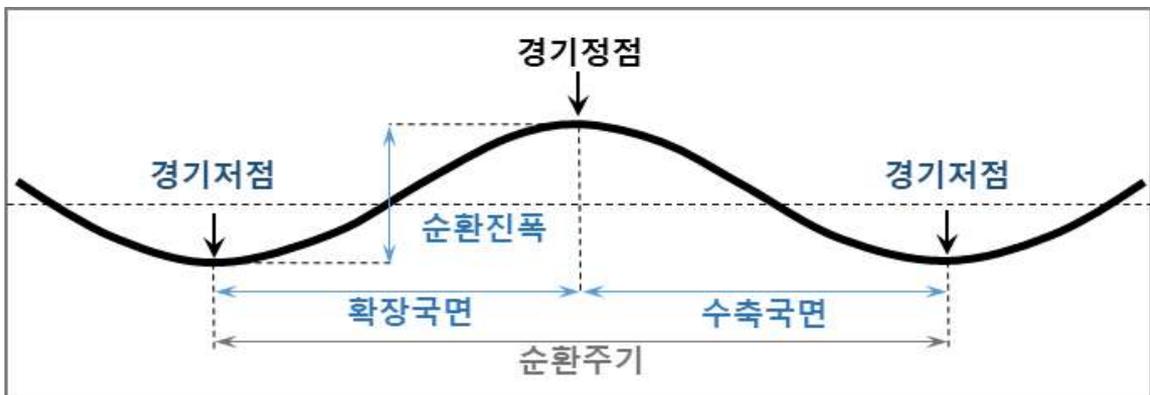
참고1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

□ 설정 배경

- 제11순환기 경기정점('17.9월) 이후 상당기간(약 5년 5개월)이 경과하고, 저점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시현되면서 새로운 기준순환일 설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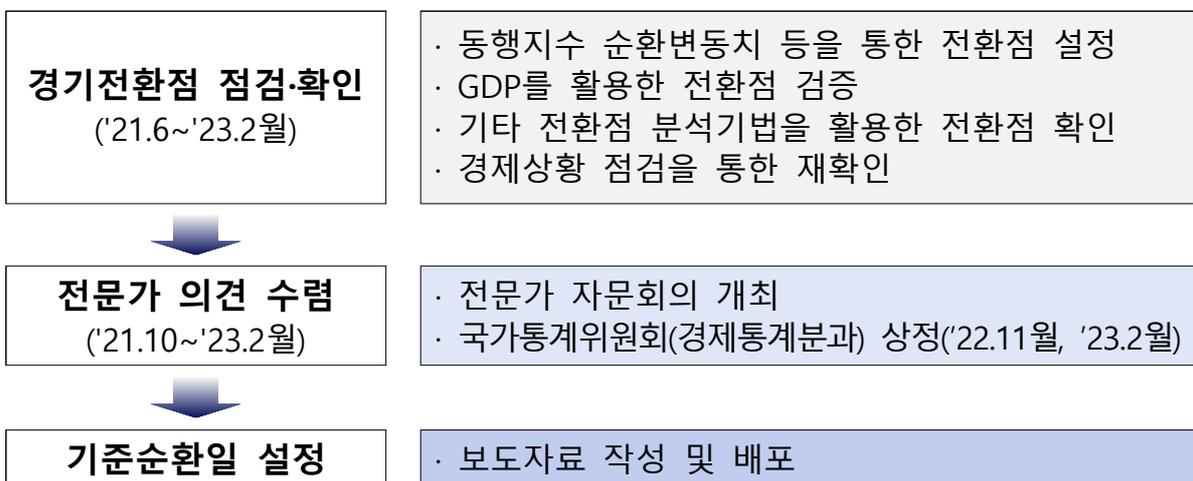
□ 기준순환일의 의미

- (정의) 기준순환일(Reference Date of Business Cycle)은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(정점·저점)



- (활용) 경기순환 특성 및 경기변동 행태 연구,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, 경기 선행·동행·후행성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

□ 설정 추진경과



□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

❖ 제12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『2020년 5월』을 잠정 설정

- 제11순환기는 '17년 9월 정점(잠정) 이후 32개월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'20년 5월에 저점이 형성된 것으로 잠정 확인

- '17.4/4분기부터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, 생산, 수출 둔화가 나타나면서 경기 수축 국면 도래
 - '19년 중반까지는 미·중 무역갈등('18~'19), 일본의 수출규제('19), 고용률 감소('18) 등으로 국내 경기 위축
 - 이에 더하여, 코로나19 대유행('20.1월~)으로 글로벌 경기침체, 생산, 소비 및 수출입 급감 등 급격한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
- '20.5월 이후 주요국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, 재난지원금 지급,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

□ 기대효과

- 기준순환일 설정은 최근 경기순환국면*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

* 확장국면 :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, 경기가 호전되는 상태

수축국면 :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,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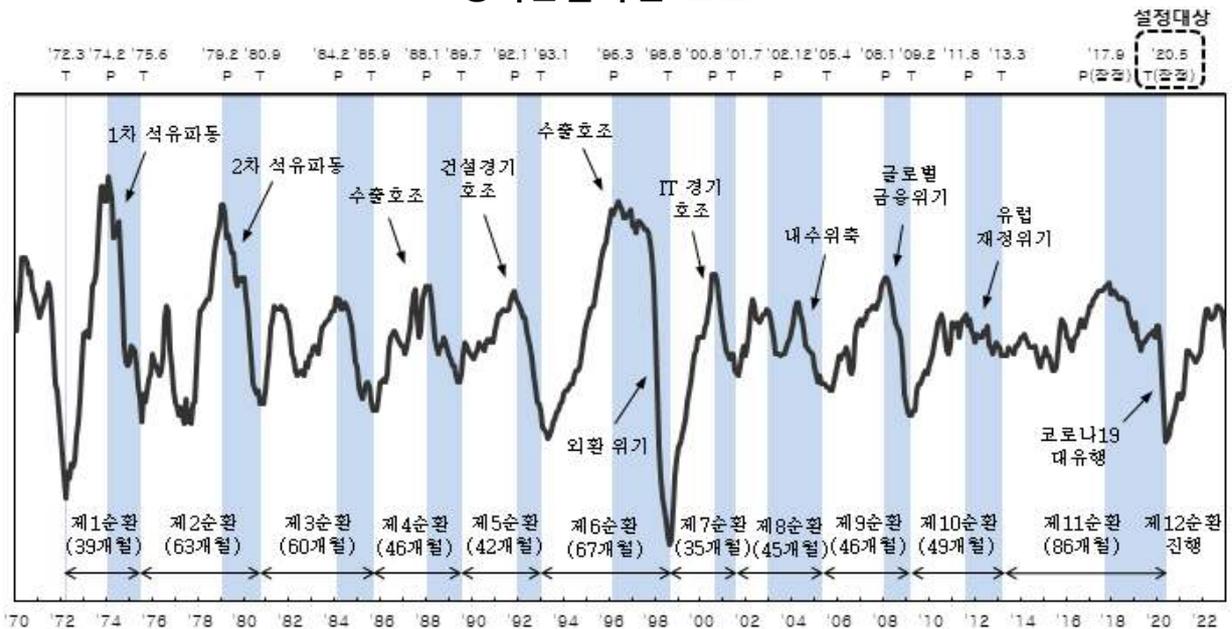
- 경기를 연구·분석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용
-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급변하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

<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>

	기준순환일			지속기간(개월)		
	저점	정점	저점	확장기	수축기	순환기
제1순환기	1972. 3	1974. 2	1975. 6	23	16	39
제2순환기	1975. 6	1979. 2	1980. 9	44	19	63
제3순환기	1980. 9	1984. 2	1985. 9	41	19	60
제4순환기	1985. 9	1988. 1	1989. 7	28	18	46
제5순환기	1989. 7	1992. 1	1993. 1	30	12	42
제6순환기	1993. 1	1996. 3	1998. 8	38	29	67
제7순환기	1998. 8	2000. 8	2001. 7	24	11	35
제8순환기	2001. 7	2002.12	2005. 4	17	28	45
제9순환기	2005. 4	2008. 1	2009. 2	33	13	46
제10순환기	2009. 2	2011. 8	2013. 3	30	19	49
제11순환기	2013. 3	2017. 9 ¹⁾	2020. 5 ¹⁾	54	32	86
제12순환기	2020. 5 ¹⁾	-	-	-	-	-
평 균	-	-	-	33	20	53

※ 주) 잠정

< 경기순환국면 도표 >



※ P는 경기 정점(Peak), T는 경기 저점(Trough)을 의미

참고2 기준순환일 설정 관련 Q&A

<문1> 경기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시계열이 변경된 이유는?

-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·전환점과 속도·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로,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하여 작성
- 경기변동을 해석할 때는 경기종합지수의 장기성장률인 추세치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사용
 - 추세치는 시계열이 추가됨에 따라 변동하며, 반기 주기(2월, 8월)로 6개월분을 추가하여 추세치를 갱신하고 있음
- 동행종합지수의 추세치를 재산출한 결과, 추세증감률이 증가하여 동행순환변동치의 수준은 '22년 평균 0.6p 하락하였으나, 전월차의 평균 및 전반적인 움직임은 유사
 - 또한, 광공업생산지수·서비스업생산지수 등 동행 구성지표의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영향도 있음

<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신·구>



<문2> 제12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작업은 어느 시점에 진행되는지?

- 제12순환기 경기정점은 시계열이 더 쌓여야 판단이 가능한 상황으로,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
- 또한, 경기전환점이 나타나더라도 실제 경기전환점으로서의 명확성, 확산성,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작업,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상당 기간(과거 19~55개월)이 소요되며,
- 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경기전환점을 공식 발표